

48. 교권국가가 행하는 역사적 사건들

2012. 11. 25.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1장을 살피겠습니다. 영적 투쟁, 즉 생명의 세력과 사명의 세력 간의 투쟁이라는 기본적 입장을 중심으로 계속 살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교권로마가 어떻게 등장했으며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리를 배반했는지 단11:21~23까지 예언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후속 예언을 살피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요일2:22,23]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교권로마의 등장과 그 행사의 일부를 예언과 역사적 성취를 대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 쉽지만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친히 경고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진짜라고 말하면서 빛의 천사나 의의 일꾼으로 활동하니깐요.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답: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해왔지요. 오직 성경말씀에 의하여 검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그렇게 권고합니다. 살전5:20,21절입니다.

[살전5:20,21] 예언을 멸시치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씀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성경예언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신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언의 지도를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딤후 1:18,19) 그리고 또 범사를 헤아려보라고 합니다. 물론 진리와 신앙에 대한 것이 포함된 것은 당연하지요. 헤아려보라는 말은 시험하여 보라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배우고 듣는 성경말씀을 베뢰아 지방의 교인들처럼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경적이 아닌 것을 제외해야 합니다.

2. 일반 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내놓는 설명을 그냥 수용하고 아멘 하는 경향이 아닙니까?

답: 요즘 경향이 그렇지요? 이것은 교회가 다시 중세로 되돌아가는 현상입니다. 그때는 글을 읽을

수 없고, 또 책을 구할 수도 없어서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갔지요.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았다고요.(행17:30)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지요.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나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쉽게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을 수용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지요. 교인인지는 몰라도 성경적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석 책도 많고 설교집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그것들이 성경의 본문과 일치하는지를 잘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찾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주를 만들었고, 성구사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구사전으로 비슷한 내용이 있는 구절들을 다 찾아 대조하면서 성경적으로 무슨 뜻인지 바르게 알도록 연구해야 하지요.

3. 이 바쁜 시대에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목사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이상일 뿐이지요.

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요. 그러나 생각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생활의 한 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하는 영생의 생사문제가 달린 일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자라도 죽음 앞에는 공평합니다. 장례식 거행문제일 뿐이지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영생문제가 달린 신앙인데, 아무렇게나 믿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제시된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것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요. 이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바른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있는 동안 일상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4. 말씀 감사합니다. 지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삶의 현상이 너무 뻑뻑해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이난 시간에 단11:22 절까지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제 23절부터 말씀을 나누어야 할 차례입니다.

답: 고맙습니다. 먼저 성경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지요.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21절부터 잠깐 복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절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등장과 그의 행사에 대하여 간단히 예언하고 21절에는 로마가 그에게 황위를 주려고 하지 않았던 비천한 존재가 모략으로 그 위를 차지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를 티베리우스라고 하지만 저는 성경에 언이 복음의 발전과 직결된 사실들을 예언한다는 것과 8장의 작은 뿔의 등장과 관련하여 이것이 작은 뿔의 등장을 표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권세를 잡은 작은 뿔 곧 교권로마는 그것을 반대하여 일어난 넘치는 물 같은 군대를 오히려 멸합니다. 그들이 아리우스 주의를 따른 아리안 파 국가들인 반달스, 헤룰리, 동고트라는 것을 이야기 했지요. 그리고 동맹한 왕은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늘 성소를 혈고 타미드를 이 세력이 차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속죄봉사를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차단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왕도 그렇게 패할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22절의 예언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

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다음으로 23절, 24절이 예언되었습니다. 읽어봅시다.

[단11:23,24]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24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흠여 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3절의 그는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작은 뿔, 즉 교권로마는 형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약조한 상태이지요. 그런데 이 교권로마는 약속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따라 성경을 변경합니다. 거짓을 행하여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대로(요일2:22,23)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지요.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구주요 중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약조를 어긴 것인데, 단 7:25의 때와 법을 변경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올라온다는 말은 “아라”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증가한다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성경대로 하지 않는 일로 크게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실이지요. 또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7장과 8장에 작은 뿔에 대한 직설적인 설명입니다. 교권로마는 정말 적은 백성을 거느렸지만 얼마나 강하게 되었습니까. 24절은 평안한 때에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왔다고 했지요. 이것은 8장에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하는 표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24절부터 예언은 이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에서 찢지 못할 일을 저지른 사건에 대한 예언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군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5. 아, 십자군 전쟁에 대하여서도 예언했군요. 여기 기록된 사실이 어떻게 십자군 전쟁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으킨 전쟁인데요, 이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역사적으로 모독을 받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입니다. 물론 끝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것은 계시록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신 사실과 일치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세벨에 대하여 말합니다. 물론 이세벨은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없는 사람이지요. 그는 옛날 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였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표상입니다. 계2:20~23의 예언입니다. 읽어보지요.

[계2:20~23]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

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예언 상으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다니엘 11:24절부터 예언된 동일한 시대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다른 시간이 필요하고 이것은 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이니까, 단 11:24절과 관계된 사실만 말할 수밖에 없네요. 표상적으로 여자는 교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지요. 엠5:24,25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 지니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같은 의미는 호세아서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세벨은 여자인데요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를 잡은 교회를 뜻합니다. 이 교회가 왕의 권세를 잡고는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합니다. 즉 성경의 진리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녀들 곧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단11:24의 예언을 계시록에서는 교회의 역사적 진행과 관련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6. 그러면 24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셔서 애청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답: “그가 평안한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평안 때라는 말은 십자군을 일으켰을 당시의 세계가 전쟁의 시기가 아니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왔다는 말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작은 뿔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온 것을 가리킵니다. “가장 기름진 곳”이라는 표현은, 십자군을 일으킨 교황 우르반(Urban) II세(재위 1088~1099)가 십자군의 필요를 역설하는 말 가운데 그대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군을 일으킬 것을 가결한 남프랑스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연설하면서 “유럽은 가난하고 비참하지만, 성지 예루살렘은 얼마나 풍요한가?”라고 역설하였습니다.(삼성 출판사, 대 세계의 역사 5권, 160) “그 열조와 조상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 이름으로 동원된 십자군의 잔학상은 극에 달하였고, 십자군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참으로 초대 그리스도 교회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 교회가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한 것이지요. 역사책에 적어놓은 글을 좀 읽어볼게요. “함부로 살인하는 일은 극력 피해야 옳았다. 그런데도 십자군에 종군한 유럽의 기사들은 이러한 행동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약탈, 폭행, 살인 등을 함부로 자행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은 기사도와는 아주 거리가 먼 태도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극심했던 것은, 제1회 십자군이 1099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다. 십자군의 병사들은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처럼 남녀를 모조리 학살했다. 비전투원이라도 가만히 두지 않았다. 이 때의 실정에 관해서, 예루살렘 공략전에 종군한 남프랑스의 어느 성직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곳에는 감탄할 만한 풍경이 전개되었다. 예루살렘의 큰 가로나 광장에는 사람의 머리와 팔다리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병사와 기사들은 시체를 헤치면서 전진했다. 신전이나 회랑은 말을 탄 기사의 무릎 또는 말고삐까지 붉게 물든 피바다였다. ...그처럼 오랫동안 모독을 자행하던 무리가 더럽힌 이 장소를, 그들의 피로써 물들이기를 원하시는 신의 심판은 공정하고도 또한 찬양할 만하다.’”(삼성 출판사, 대 세계의 역사 5권, 158). 정말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한 것이 맞지요? 예언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

는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오래 전에 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오해하게 하는 사건을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한 것은 옛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 36:22,23에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같은 선언이 단11:26에도 있습니다. 지금 24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4~30까지는 연속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26절에는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흠어질 것이요 많은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한 계2:20~23의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환난으로 성경의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지요.

7. 목사님, 아마도 십자군들이 그렇게 한 것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전쟁 사건들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대인과 성지를 빼앗은 이방인에 대하여 형벌을 가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전쟁과 형벌에 대한 기록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은데요?

답: 예, 바른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요.(요일4:8) 구약에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지요.(출34:6)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의 이런 성품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성경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다 죽은 자라고 분명히 계시합니다. 이 말은 전에 나눈 이야기가 아닙니까? 고전15:22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후손들은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8:21,22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가가 아버지 장사한 후에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진 자만 죽은 자가 아니고 그 죽은 자를 장사하는 사람들도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은 후에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아무도 산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그냥 장사해버리지 않고 창조주께서는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구약성경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아직 죽음이 집행되기 전에 그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조치를 계속 거절하여 완전히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장례합니다. 그것이 진멸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간절한 바램을 잘 표현합니다. 겔18:31,32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렇게 간절히 권해도 기어이 거절하고 죽기로 작정했을 때, 돌이킬 생각이 절대로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로 진멸하라는 말입니다. 옛 십자군들이 이 이치를 몰랐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이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이 좀 어렵든지, 병이 들면 하나님이 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그렇게 오해한 결과는 사단이 손뼉을 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8.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면 우리도 하나님을 엄청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산다는 의미로 잘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버릇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군요. 우리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무튼 목사님, 24절의 말씀과 26절의 말씀은 당시 사정을 정말 잘 예언으로 기록해 주셨네요. 십자군 전쟁은 모두 여덟 차례 있었는데 그 처음이 1099년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은 고레스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600년 전에 아주 정확하게 예언하셨네요.

답: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빼앗아 갑니다.(눅8:12)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백성을 패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애청자들께서도 다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서 바른 믿음으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9. 예, 목사님 시간이 되었네요.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만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실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예언을 깨달아 알아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